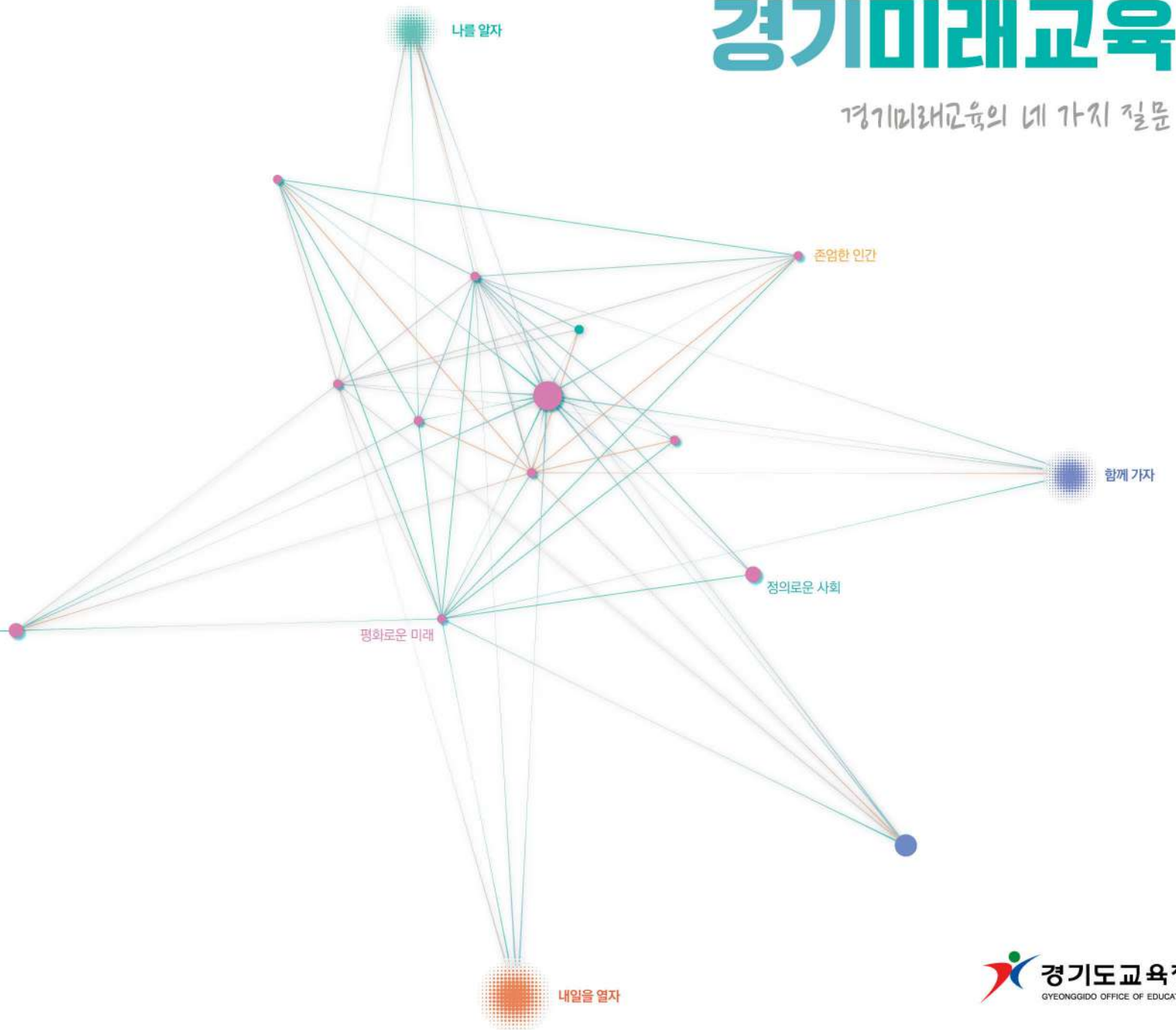


2030 경기미래교육

경기미래교육의 네 가지 질문

2030 경기미래교육



비전



나를 알자

+



함께 가자

+



내일을 열자



존엄한 인간

+



정의로운 사회

+



평화로운 미래

지향

2030 경기미래교육

2030 경기미래교육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창

04

2030 경기미래교육의 준비

05

2030 경기미래교육의 질문

06

2030 경기미래교육의 비전과 지향

10

2030 경기미래교육의 모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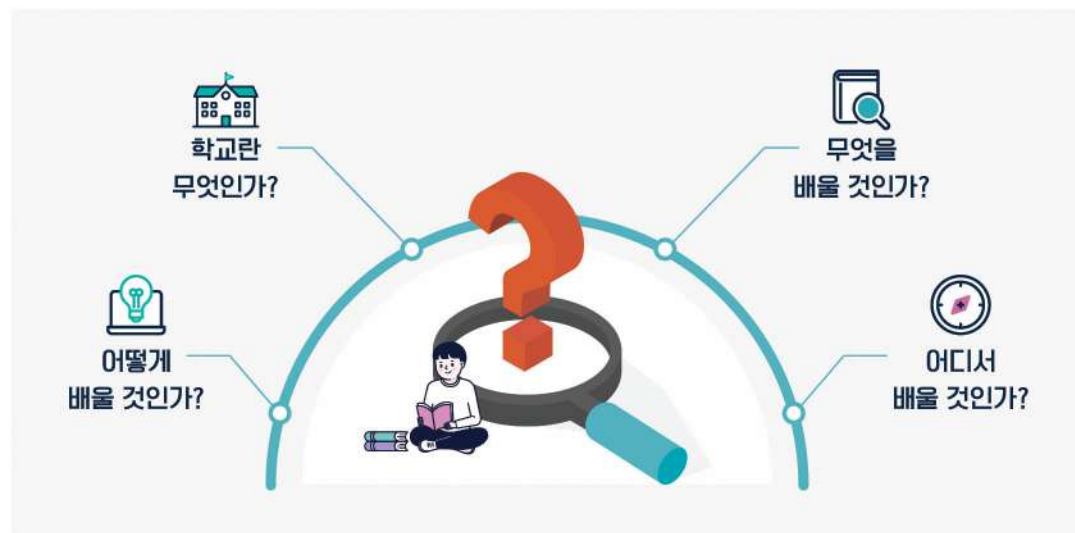
2030 경기미래교육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창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와 방향이 이전과 달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공존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와 '공동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넘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학습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배움이 가능하게 되면서 교육의 본질, 학교체제와 교육과정, 학생의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인간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한 교육공간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분절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표준화된 시간표, 학급 단위 학습, 교과서 등과 같은 획일적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30 경기미래교육의 준비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래사회 전망 속에 2030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미래사회 전망	2030 경기미래교육 방향 시사점
산업 구조의 변화,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 증대	-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 강화 -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창업 기회 확대 -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 협력학습 강화
교육 불평등	- 온라인 학습, 학교 밖 학습장 등 다양한 배움 인정 -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 확대 - 학생 수준에 맞추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기술융합, 초연결 사회	-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환경 구축 - 체계적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인구 구조 변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학교 운영
생태 및 환경 변화	- 기후위기, 감염병 등 생태 환경 및 전지구적 문제 관심 - 공존과 상생의 가치 증대
다양한 학습 형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과 지역사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학교 다양화



2030 경기미래교육의 질문



☑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래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코로나-19에서 나타나듯이 기후위기, 감염병, 환경 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여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이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넓히면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의 흥미, 장래희망, 학습 이력, 진로 등은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결정 과정은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학생은 ICT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과 속도, 진도에 따라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생의 개인별 맞춤학습은 온라인-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학습이력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학생 개인별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경기도형관리시스템(G-LMS, Gyeonggido-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생의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개별학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 어디서 배울 것인가?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 제한적인 온라인 학습 등 지금까지의 배움 형태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의 배움 경로를 다양하게 인정하는 개방적인 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 수업 외에 온라인 학습, 꿈의학교, 몽실학교, 꿈의대학, 지역 연계 체험활동 등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합하여 성장을 위한 총체적인 배움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나아가 학생은 온라인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학교란 무엇인가?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사들을 만나면서 배움을 넓혀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성, 윤리성, 공동체성 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와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학생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좋은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센터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교와 지역사회로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획일적인 학년제와 학급제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난다. 수업 시간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표의 개념은 학생이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가의 의미로 바뀔 것이다.

2030 경기미래교육의 비전과 지향

경기미래교육 비전

학생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공동체와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2030 경기미래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나를 알자'는 학생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도전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 '함께 가자·내일을 열자'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미래교육 지향

경기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존엄', '정의', '평화'는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미래교육은 다음을 지향한다.



-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 '공평한 기회,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2030 경기미래교육의 모습



2030년 시간표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개별화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년과 학급은 사라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장, 지역 사회 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신의 흥미,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학교, 타 지역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와 국가 간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되어 학교 밖 학습장에서는 도시 스마트 농업, 메이커 교육, 다양한 도제교육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30 경기미래교육의 모습

1 학생은 학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배웁니다.

- 학생은 학교-온라인-마을에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되어 진로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통합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을 뛰어넘어 자신의 성취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 학생은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학년과 학급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은 사라집니다. 학생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학생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 학생에 맞는 개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합니다.

3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학습환경으로 변화합니다.

-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과 속도에 따라 학습합니다.
- 학생은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개별학습을 합니다.
- 경기도형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학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학습에 대한 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이 누적되면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 학생은 경기도형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표, 수행평가, 준비물을 확인하고 출결을 등록합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멘토교사(지도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학습공간, 가상과 현실의 연결을 통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배웁니다.
-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됩니다.

4 교육행정과 교사의 역할도 학생을 중심에 둡니다.

- 스마트 업무 환경에서 교사들은 협업하며 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습이력을 관리하면서 잘 코칭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상담해주는 선생님 등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할이 다양해 집니다.
-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